

# 심층분석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2026.05.10

### 심층분석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 일반행정 직무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한국 고등교육 시장의 4트랙 구조와 POSTECH의 좌표

한국 고등교육 시장은 명목상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이분법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 논리에서는 네 갈래로 분화한다. 첫째는 사립대학이다. 약 151개 대학이 여기에 속하고 전체 고등교육 학생의 80% 가까이를 흡수한다. 둘째는 국공립대학이다. 39개교가 운영되며 등록금이 사립의 절반 수준이다. 셋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구성된 네 곳의 국가 과학기술원이다. 이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직속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 법인이다. 넷째는 사립 형식이지만 특수목적성을 띤 연구중심대학으로, POSTECH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여기에 자리한다.

POSTECH은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운영 논리는 4대 과학기술원에 가깝고, 자본 구조는 SKY 사립대보다 더 자율적이다. 이런 어정쩡한 좌표는 그동안 정부 사업 참여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바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POSTECH 같은 이공계 특성화 사립대도 정부 예산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길이 열렸다는 의미이며, 행정 실무 입장에서는 향후 신규 사업비 정산과 평가 대응 업무 수요가 늘어난다는 신호로 읽힌다.

##### 1-2.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교육부 자료를 종합하면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20년 240만 명대에서 2030년 187만 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 대비 77.8% 수준이다. 한 매체의 보도 기준으로 2026년 학령인구는 약 483만 명대에 진입했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약 29만 6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 숫자는 2040년대 대학 입학자원이 어디까지 후퇴할지 가늠하게 만드는 선행지표다. 교육부는 2022~2025년 사이 96개교의 정원 감축, 적정규모화 정책, RISE(2026년 '앵커' 사업으로 명칭 변경), 글로벌대학30(5년간 1,000억 원 공급하기 사업당) 같은 패키지로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다.

POSTECH은 이런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학부 정원 320명, 정원 외 60명을 포함해 380명 규모로 매우 작고, 대학원 비중이 학부보다 더 크다. 즉 학령인구 충격이 입학 정원에 닿기 전에 대학원 연구 인력 수급의 변동이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김성근 총장이 자체 진단에서 짚은 부분도 이 대목이다. 인구 자체보다는 의대 쏠림과 서울대·KAIST 우선 선택 흐름 속에서 우수 학부생 유입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행정 실무 영역에서 보면 입시 행정의 무게는 다른 사립대보다 가벼운 대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생활지원·국제 교류 행정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구도다.

##### 1-3. 등록금 16년 동결의 종료와 사립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사총협이 발표한 2026년 등록금 조사 자료를 보면 사립대 151곳 중 122곳(80.8%)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 39곳 가운데에서는 단 3곳(7.7%)만 인상했다. 16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패러다임이 사립을 중심으로 깨진 첫 해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9.2만 원으로 국공립 평균 400.4만 원의 약 1.9배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2020년 362만 원에서 2024년 854만 원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으로 2.4배 가까이 벌어졌다. 사립대 10곳 가운데 8곳이 적자라는 한국일보 기획기사 표현은 등록금 의존도가 70%대인 사립대 운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POSTECH의 행정은 이 거시 환경 안에서도 결이 다르다. POSTECH 대학원 등록금은 2025학년도에 동결을 유지했고, 학부 역시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낮다. 학교 예산 약 2,000억 원대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사립대 평균을 크게 밑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항목이 정부 R&D 수탁, 산업체 수탁, 포스코 지원, 학교 자체 재원, 외국기관 수탁, 그리고 법인 출연이다. 행정 KPI에서 등록금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대신 재정 다각화 행정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다른 사립대 행정직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 1-4.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다층 구조와 실무 무게

POSTECH 일반행정 실무자가 마주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한 둘이 아니다. 첫째로 글로벌대학30이 있다. 2023년 1차 선정으로 5년간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둘째로 4단계 BK21이 있다.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연 5,247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미래인재양성과 혁신인재양성, 대학원혁신지원 세 갈래로 나뉜다. 셋째로 RISE 또는 라이즈 후속 사업이 있고, 넷째로 LINC 3.0 산학협력 사업이 있다. 다섯째로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이 있는데,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개월간 운영된다. 여섯째로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선도연구센터 사업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다양한 R&D 사업이 있다. 일곱째로 POSTECH 환동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실행 트랙이다.

이 사업들은 일반행정직의 일상 업무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등장한다. 사업 기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일,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정산하는 일, 연차평가와 단계평가에 대비해 지표 자료를 모으는 일, 연구비 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을 챙기는 일, 참여 연구원 인건비와 학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사업비 집행 결과를 NTIS와 연구재단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한 명의 행정 실무자가 동시에 둘 또는 세 사업의 실무를 챙기는 경우가 흔하다. 실무 난도는 일반 사기업의 회계 보조보다 결코 낮지 않다.

### 1-5. 연구중심대학 평가지표의 가중치 변화

QS 세계대학순위는 2024년 평가부터 새로운 가중치 체계를 적용했다. 학계 평판이 30%, 논문 피인용이 20%, 졸업생 평판이 15%,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10%,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각각 5%, 국제 연구 네트워크가 5%, 졸업생 취업성도가 5%, 지속가능성이 5%다. POSTECH의 점수 분포를 보면 분기점이 분명하다. 논문 피인용에서 약 98.3점을 받아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율 항목에서는 4점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2.6점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다. 연구는 세계급, 국제화는 하위라는 양극 구조가 평가 결과 안에 그대로 박혀 있다.

THE 평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2026년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POSTECH은 141위를 기록했고, 연구품질 79.2점을 받았으나 국제화 항목 점수는 부진하다. THE 소규모 세계대학평가에서는 Caltech에 이어 세계 2위에서 3위권을 5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보고 행정이 도출해야 할 시사점은 분명하다. 외국인 교원·학생 행정 지원,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행정, 글로벌 산학 행정의 가치가 KPI에서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 1-6. Caltech, MIT, Stanford라는 글로벌 벤치마크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김성근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Caltech, MIT 수준 도약'을 명시했다. 박태준 설립 이사장도 1986년 개교 당시 Caltech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Caltech은 학부생 1,000명 미만의 소수정예 모델 위에 Jet Propulsion Laboratory(JPL)와 LIGO 같은 메가사이언스 인프라를 결합한다. 의대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USC와 UCLA 의대와 컨소시엄으로 협력한다. MIT는 학·연·산·창업 통합 모델의 정수를 보여 주고, Stanford는 d.school과 SLAC 가속기, 실리콘밸리 산학 생태계를 한 캠퍼스 안에 묶어 운영한다.

POSTECH은 이 세 모델을 동시에 이식하려고 한다. PAL-XFEL과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MPK)는 Caltech의 메가사이언스 인프라에,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은 Stanford의 실리콘밸리 산학 모델에, Apple Developer Academy@POSTECH은 MIT 미디어랩 같은 산업 협력 모델에 대응한다.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글로벌 벤치마크는 추상이 아니라 일감의 형태로 다가온다. 메가사이언스 시설 운영비를 정산하는 일, 글로벌 R&D 행사를 기획하는 일, 외국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과 후속 행정을 챙기는 일이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다.

### 1-7. R&D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행정 인력의 역할 변화

연구비 관리 영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과 R&D 카드 통합관리 강화로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다. 출장과 회의비를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행정 실무자가 들여다봐야 할 시스템 화면도 늘었다. POSTECH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PCO와 RETINA, OASIS 같은 연구지원 포털을 운영한다. 학사 영역에서는 POVIS라는 통합 시스템이 입학·수강·성적·학적 변동·졸업까지 다양한 흐름을 한 화면에서 처리한다. 행정 인력의 역할은 종이 결재를 회람하는 옛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AI 기반 행정 자동화 도입 흐름은 2025년과 2026년 한국 사립대 전반의 트렌드다. POSTECH도 인공지능연구원과 제조 산업안전 AI MOU 같은 자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학내 행정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할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일반행정 직무가 향후 5년 안에 데이터 행정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직무'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POSTECH 행정은 연구중심대학 행정 카테고리 안에서도 정부 사업 회계, 연구윤리, 국제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네 영역이 동시에 작동한다. 한국 사립대 행정 직무 가운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한다. 일반대학 행정직과 갈라지는 지점은 사업비 정산 실무, IRB와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 영어 행정 문서 작성, 학사·연구 시스템 데이터 다루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인의 경험과 자격, 어학 점수, 디지털 툴 숙련도를 이 네 영역에 따라 정렬해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자기 점검 방식이다.

---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5대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개관

한국 이공계 정상권은 다섯 곳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 KAIST는 1971년 설립된 특별법 인으로 대전에 자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이다. GIST는 1993년 광주에, DGIST는 2004년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UNIST는 2007년 학부 설립을 거쳐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며 울산에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자리한다. KAIST와 GIST와 UNIST는 각각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고 DGIST는 재단법인이다. POSTECH은 1986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는다. 다섯 곳 모두 이공계 특성화라는 공통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거버넌스와 자본 구조와 평가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 가운데 POSTECH은 사립이라는 점에서 가장 외로운 위치에 있다. 4대 과학기술원처럼 정부 직접 출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치 사이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율성을 누린다. 이 자율성은 행정 실무에서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의 속도, 신사업 투자 의사결정의 자유도, 외부 정치 변수에 따른 인사-예산 변동 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2-2. 정부 의존도와 재무 안정성의 차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2025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대 과학기술원의 합산 예산은 약 2조 2,486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6,241억 원으로 27.7%를 차지한다. 비율로는 GIST가 42.7%, DGIST가 42.2%, UNIST가 30.4%, KAIST가 20.5%다. 4대 과학기술원도 외부 수탁이 70%대를 차지하는 구조다. 4대 과기원이 '국가 직속'이라는 인상과 달리 실제 운영비의 다수가 외부 사업에서 들어온다.

POSTECH은 이 그림과 다르다. 정부 직접 출연금은 사실상 0원에 가깝고, 법인 출연(포스코 지분 4.5% 배당과 자체 자산 운용 수익), 정부 R&D 수탁(76.62%), 산업체 수탁(11.03%), POSCO 직접 지원(6.49%), 학교 자체 재원(5.54%), 외국기관 수탁(0.31%)으로 BS가 짜여 있다. 4대 과기원과 비교하면 정부 정치 변수에 덜 휘둘리는 대신 포스코 그룹 시황과 자본시장 환경에 더 민감하다.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부 예산 사이클이 흔들릴 때 POSTECH 행정은 4대 과기원만큼 즉각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다.

### 2-3. 규모와 평가 결과의 비교 서술

학생수와 전임교원, 예산, 평가 결과를 다섯 대학에 걸쳐 풀어 보면 POSTECH의 위치가 또렷이 드러난다. POSTECH은 학생수가 약 3,200명 수준이다. 학부가 1,300명대, 대학원이 1,800명대다. 전임교원은 약 290명이다. 연 운영 예산은 약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이고 R&D 예산은 약 3,148억 원이다. KAIST는 학생수가 1만 2,000명을 넘고 전임교원도 700명대 이상이며, 연 예산은 약 1조 3,570억 원이다. UNIST의 연 예산은 약 3,481억 원, GIST는 약 2,735억 원, DGIST는 약 2,700억 원이다. 절대 규모로는 KAIST가 압도하지만 학생수 대비 연구비, 즉 연구 집약도에서 POSTECH이 다섯 곳 중 가장 높다. 교수 1인당 연구비 10.8억 원이라는 수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한다.

2026 QS 세계대학순위에서 POSTECH은 102위에 자리했다. 전년 98위에서 4계단 하락하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결과다. KAIST는 2026 QS 평가에서 학계 평판 설문 로비 의혹으로 평가 제외 제재를 받았고 2027 사이클 복귀가 예정돼 있다. UNIST는 310위, GIST는 385위, DGIST는 370위에 자리한다. 2026 QS Asia 순위에서는 POSTECH이 18위로 4계단 상승했다. 2026 THE 세계대학순위에서는 POSTECH이 141위, KAIST가 70위에 위치했고, UNIST는 201~250위 구간, DGIST는 351~400위, GIST는 401~500위 구간에 분포한다.

등록금 정책도 다섯 곳이 다르다. POSTECH은 학부 등록금이 동결 또는 소폭 변동에 머물러 있고 대학원도 2025학년도 동결을 유지했다. KAIST와 UNIST는 차등 장학 형태를 쓰고, GIST는 약 3분의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2 수준의 면제 구조, DGIST는 4년 전액 장학금 운영해 왔다. POSTECH의 등록금이 사립 평균에 가까운 편이지만 장학 비중이 높아 실질 부담은 낮은 구조다.

### 2-4. POSTECH 사립 거버넌스의 양면성

POSTECH은 1995년 학교법인 분리 이후 포스코의 직접 지원과 간섭이 사라졌다. 다만 법인 출연 시 받은 포스코 주식 4.5% 분량의 배당과 평가차익이 여전히 학교법인의 자산 운용 토대를 이룬다. 법인 자산은 조 단위로 평가되고, 법인 이사장은 전·현직 포스코 회장이 맡는다. 현 이사장은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다. 이 구조는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정부 정치 사이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만든다. 동시에 포스코 본사의 시황, 즉 철강 다운사이클과 2차전지 사업 전환 같은 외부 변수가 학교법인의 장기 출연 여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남긴다. 일반행정 실무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의 결산 공시와 포스코홀딩스의 공시 자료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2-5. 최근 1~6개월 경쟁 지형의 변화

KAIST는 2026 QS 평가에서 학계 평판 설문 로비 논란으로 평가 제외 제재를 받았다. 한국 100위권 대학이 5개에서 3개로 줄면서 POSTECH의 상대적 입지는 변동을 겪었다. UNIST와 DGIST와 GIST는 2026 QS에서 30~63계단 하락하며 국제화 지표 한계를 드러냈다. POSTECH은 2026 QS 102위로 100위권 밖으로 밀렸지만 2026 QS Asia 18위와 THE 141위로 종합 평판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2026 THE 세계 톱100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4개교(서울대, KAIST, 연세대, 성균관대)가 진입했다. 종합대 사립의 추격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POSTECH 같은 이공계 특성화 사립대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 보강책이다.

### 2-6. 비교 분석에서 도출되는 POSTECH의 차별 좌표

POSTECH의 좌표는 짧게 정리하면 '4대 과기원의 정부 출연 구조와 SKY 사립대의 자율 거버넌스를 동시에 보유한 한국 유일의 모델'이다. 정부 정치 사이클과 등록금 정치 사이클에서 다른 어떤 한국 대학보다 자유롭다. 다만 포스코 그룹의 산업 사이클을 간접적으로 안고 있어 재단 안정성과 포스코홀딩스 IR을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한다. 학생 1인당 연구 집약도에서는 다섯 곳 가운데 정상에 자리하지만 국제화 지표에서는 같은 그룹 안에서도 하위에 머물러 있다.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화 지표 개선'이 향후 5년의 KPI 가운데 가장 빠르게 무게가 늘어날 영역이다.

###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POSTECH의 좌표는 다섯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사이에서도 별개의 위치에 있다.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4대 과기원의 특성과 자율 거버넌스를 갖춘 사립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모델이라는 점에서다. 지원자는 4대 과기원이나 SKY 사립대 행정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차별점은 법인 거버넌스의 자율성, 세계급 연구 인프라, 소수 정예라는 세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설립 배경과 박태준 비전이 만든 1986년의 출발

POSTECH은 1986년 12월 3일 김호길 박사 초대 학장과 박태준 설립이사장(당시 포항제철 회장)의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주도로 개교했다. 이듬해 1987년 3월 9개 학과 249명의 신입생이 첫 강의실에 들어섰다. 1994년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영문명 POSTECH은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줄임말로 학교가 대외에 일관되게 사용한다. 'Caltech 한국형'을 표방한 한국 최초의 연구중심 사립대로, World Bank가 별도의 특별보고서로 다룬 만큼 압축 성장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태준 회장은 '교육보국'이라는 이념을 설립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고, 이 정신은 학교법인 분리 이후에도 학교 비전과 인재상의 중심에 자리한다.

### 3-2. 학교법인,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의 3중 구조

POSTECH의 거버넌스를 이해하려면 세 주체의 관계를 정확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 첫째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다. 1995년 기존 학교법인 제철학원에서 분리해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포스코 주식 약 4.5%를 보유하고 있고, 총자산은 조 단위로 평가받는다. 법인 이사장은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다. 둘째는 포스코청암재단(POSCO TJ Park Foundation)이다. 청암 박태준의 호를 딴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등대장학생, 아시아 펠로십 같은 장학·학술·문화 사업을 운영한다. POSTECH 학생도 핵심 수혜자다. 셋째는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 본체다. 직접적인 산하 관계는 1995년 끊겼지만 산학협력 사업이나 인적 교류, 기부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이 세 주체가 별도 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POSTECH의 자금 흐름을 잘못 해석하기 쉽다.

### 3-3. 학사 인프라와 학과 구성

POSTECH은 12개 학부 학과와 1개 인문사회학부를 운영한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IT융합공학과, 반도체공학과가 이공계 학과로 자리하고, 인문사회학부가 별도로 있다. 학부 입학은 100% 무학과로 운영되고, Open Curriculum 체제 아래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사 설계를 한다. 대학원은 약 20개 과정으로 분화되어 있다. AI 대학원, 융합대학원, 의과학과정, 친환경소재대학원 같은 신규 과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학생수는 약 3,200명, 전임교원은 약 290명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POSTECH 공식 '연구 현황'에 명시되어 있다. 교수 1인당 연구비 10.8억 원, 학부생 한 학년 정원 320명이라는 수치는 학교의 소수정예 모델을 그대로 보여 준다.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학과 단위 행정 부서별 인력 규모가 다른 대학에 비해 작고, 그만큼 한 사람이 책임지는 업무 영역이 넓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해야 한다.

### 3-4. 세계급 연구 인프라가 행정 업무에 갖는 의미

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 인프라는 학사 일정만큼이나 행정 업무의 중요한 백본이다. POSTECH 캠퍼스 안과 인근에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세계급 시설이 모여 있다. 첫째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다. PLS-II 3세대 가속기와 PAL-XFEL 4세대 가속기를 동시에 운영하고, 4세대 가속기는 국내 유일이며 세계 다섯 번째다. 빔라인 36개를 운영하며 연 6,000명 이상의 연구자가 활용한다. 둘째는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MPK)다. 145억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고 복합물질, 아토초, XFEL양자의 세 센터와 JRG 3그룹이 운영된다. 한국과 독일을 잇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인턴십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된다. 셋째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로 1996년 설립된 19개 회원국 참여 국제 이론물리 연구소다. C.N.Yang이 초대 소장을 맡았고 한국에 유일하게 자리한 국제 이론물리 거점이다. 넷째는 나노기술집적센터와 나노융합기술원이다. 다섯째는 POSTECH-Catholic Biomedical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Engineering Institute(P-CBEI) 등 의공학 협력 거점이다. 여섯째는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이다. 113개 입주 스타트업, 누적 기업가치 약 1조 5,121억 원, 근무인원 1,147명을 갖춘 비수도권 최대 인큐베이터다. 일곱째는 Apple Developer Academy@POSTECH과 Apple 제조업 R&D 가속기다. 둘을 캠퍼스에 동시 보유한 곳은 세계 어느 대학에도 없다.

이 시설들은 행정 실무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연결된다. 가속기 운영비와 빔타임 신청 행정, MPK의 한·독 공동 인사·예산 행정, APCTP의 19개국 회원국 분담금 정산, 체인지업그라운드의 입주 스타트업 행정, Apple Academy의 글로벌 파트너 행정이 일반행정 직무에서 직간접으로 등장한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PCO, RETINA, RISE, OASIS 같은 연구지원 포털이 운영되고, 일반행정 실무자는 부서에 따라 이 포털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사용한다.

### 3-5. 김성근 총장 체제와 'POSTECH 2.0'

김성근 총장은 2023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제9대 총장으로 선임됐고 9월 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8월 31일까지다.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화학물리학 박사를 받았고 영국 왕립화학회 펠로우로 활동한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1호 국가 석학에 선정된 인물이다. 취임 이후 김 총장은 'Caltech, MIT 수준 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일관되게 발신해 왔고, 학교의 국제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산학 생태계 확장을 동시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POSTECH 2.0' 또는 '제2의 건학'으로 불리는 10년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변혁이 공식 결의됐다. 정부 1,000억 원, 지자체 1,000억 원, 포스코 재단 8,000억 원, 자체 2,000억 원이 더해진 합산 금액이다. 캠퍼스 시설에 5,377억 원, 주거환경에 1,666억 원, 경영인 프라에 87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형 캠퍼스타운 조성, 교육동과 연구동 2개 동의 신축,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센터 건립이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이 변혁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Bilingual 캠퍼스 구상이 추진된다. 모든 학부 강의를 영어로 제공하고 행정 시스템도 영어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그림이다. 행정 실무 영역에서 보면 향후 5년 안에 영문 행정문서, 영어 응대, 외국인 교원·학생 행정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다는 의미다.

### 3-6. 연구중심 의대 추진과 정치 변수

POSTECH은 2023년부터 정원 50명, 500병상 부속병원, '2+4+2'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발표하며 연구중심 의대 신설을 의제로 올렸다. 김무환 전 총장 시기에 적극 추진됐고, 김성근 총장은 "필요와 당위만으로는 안 되며, 1조 원 재원과 적자 보전 담보가 마련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년 4월 3일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미래의료혁신연구회 MOU를 2025년 3월 체결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동력은 강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의대 정원 정치학(MIT가 의대를 두지 않은 사례와 일리노이대가 의대를 신설한 사례 사이의 논쟁)으로 인해 단기 실현은 불확실하다. 행정 실무 영역에서 보면 '연구중심 의대 신설 사업단'이 신설되거나 확장될 가능성을 중장기 시나리오로 두고 있어야 한다. 의대가 들어서면 IRB 행정, 연구윤리 행정, 부속병원 운영 행정, 임상 R&D 행정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 3-7. 글로벌대학30, 환동해 아카데미, 그리고 미국 진출 거점

POSTECH은 2023년 1차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되며 5년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모토는 'Local Roots, Global Fruits'다. 환동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는 2024년 2월 개소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동국대 WISE 캠퍼스, 선린대학교, 포항대학교, 안동대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컨소시엄에 함께 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2026년 4기 기준 매 기수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학생 1인당 1,000만 원의 패스파인더 바우처가 지급되고 CES와 BIO USA 같은 글로벌 행사 참여를 지원한다. 미국 진출 거점도 강화하고 있다. KIC-Washington 공유오피스가 2025년 7월 23일 개소했고, G-테크프러너 US Launch 2026 같은 미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사업들은 행정 실무 영역에서 다양한 실무를 만들어 낸다. 컨소시엄 5개 기관의 사업비 정산 행정, 부트캠프 학생 모집 행정, 패스파인더 바우처 집행과 정산, 미국 거점 운영 행정, 글로벌 연차평가와 단계평가 대응이 모두 일감으로 들어온다. 사업단 행정 인력이 별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행정직 신규 인력이 사업단에 배치되는 사례도 흔하다.

### 3-8. 산학협력, 기술이전, 창업 생태계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는 운용자산 836억 원을 보유한 자회사다. 2025년 10월 기준이며 12개 투자조합을 운용한다. 모태펀드, 포스코홀딩스, 경상북도, 농협은행, 대구은행, POSTECH 재단이 주요 출자자다. 2026년 제1회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행정직과 별개의 채용 트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는 입주율 100%, 113개사 인큐베이팅, 1조 5,000억 원대 누적 기업 가치를 갖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건주는 'Pacific Valley' 비전이 김근환 포스코 상무에 의해 공식 발신했다. 2026년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개월간 운영되며 팀당 총 사업비 3억 원, 5개 내외 팀이 선정되는 구조다. 기술이전형과 창업형으로 나뉜다.

### 3-9. 차별 좌표와 리스크의 통합 정리

POSTECH의 차별 좌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 1인당 연구비 10.8억 원으로 국내 1위에 자리한다. 법인 자산이 조 단위 규모이고 포스코 지분 4.5% 배당이 안정적인 자본 토대를 이룬다. PAL과 MPK와 APCTP 같은 세계급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결합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메가 투자가 진행 중이다. 100% 무학과와 Open Curriculum, Bilingual 캠퍼스 같은 학사 혁신을 동시 추진한다. THE 소규모대학 평가에서 Caltech에 이어 세계 2~3위권을 5년 연속 기록했다.

리스크도 함께 살펴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의대 쏠림 흐름은 우수 학부생 입학 압박 요인이다. 포스코 그룹의 시황(철강 다운사이클과 2차전지 사업 전환)은 학교법인의 장기 출연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변수다. 2026 QS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결과는 국제화 지표의 부진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의대 추진은 정치와 재정 모두에서 변수가 많다. 지방 입지로 인한 외국인 유치 어려움도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 등록금 동결 종료 이후의 사립대 재편 압력도 잠재 리스크다.

###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POSTECH 행정직은 학교 직원의 정체성과 함께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변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력으로 자기 정의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김성근 총장의 임기(2027년 8월) 안에 의대, POSTECH 2.0, 2단계 글로벌, BK21 5단계 전환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사업단, 기획처, 연구처에 배치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며, 사업관리(PM)와 예산통제 역량이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 4-1. POSTECH 공식 비전과 인재상의 다섯 가지 키워드

POSTECH의 공식 비전 슬로건은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가치창출대학(Value Creating University)'이다. 인재상의 키워드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수월성(Excellence)이다. 둘째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셋째는 창의성이다. 넷째는 도전정신이며, 'Dare to Be Different'라는 영어 표현이 함께 쓰인다. 다섯째는 지혜로움이다. 학교의 채용공고 첫 문장은 일관되게 이 인재상을 명시한다. "수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에 함께할 지혜롭고 도전적인 인재"라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한다. 학생 비전은 'Pathfinder'로 표현되는데, 행정 인력도 같은 모험가 정신을 공유한다는 메시지가 학교 안팎에서 일관되게 발신된다.

### 4-2. 연구중심대학 행정직의 다중 이해관계자 구조

연구중심대학의 행정은 다중 이해관계자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 박사 학위를 보유한 교수와 연구자가 1차 내부 고객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2차 내부 고객이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같은 정부 부처가 외부 1차 고객이다. 외국인 교원과 학생, 산학 파트너(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Apple, SK, Google 등)가 추가 고객이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면 의사결정 사이클이 학사 일정(학기 시작과 종료, 입시, 졸업, 평가)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의전과 문서 정확성, 법규 준수가 의사결정 속도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잡플래닛을 비롯한 다수의 후기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 4-3. 박사급 연구자 응대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패턴

전임교원 약 290명 가운데 다수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다. 이들과 일상적으로 협업하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패턴도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첫째로 연구 도메인 용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요구된다. 논문, 인용지수(IF), SCI, 피인용 같은 개념을 행정 실무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 비용이 줄어든다. 둘째로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 양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양식이 틀리면 사업 평가 결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영문 행정문서 작성 능력이다. 외국인 교원 비중이 높고 글로벌 협력 사업이 많아 영어 메일과 영어 보고서가 일상에 들어와 있다. 넷째로 행정 정보의 단답형 요약과 근거 보고 스타일이 선호된다. 박사급 연구자는 결론을 먼저 들고 근거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패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채용공고의 우대조건에는 '웹편집, 영상과 사진 편집, 통계 프로그램 능통자,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디지털 행정 역량이 일관되게 명시된다. 이는 행정 실무에서 데이터 시각화와 콘텐츠 생산 역량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4. 영어 행정 능력의 기준선과 실전 활용

POSTECH 정규직 일반행정의 표준 어학 기준은 TOEIC 700점, TOEFL IBT 80~82점, (New)TEPS 265~555점, OPIc과 TOEIC-S에서 IM2 이상이 일반적이다. 공고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고, 영어권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했거나 영어권 5년 이상 거주자는 어학 점수 제출이 면제된다. 어학 점수는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 성적이어야 하고 국외 시험과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전에서는 어학 점수보다 실제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 Bilingual 캠퍼스, 외국인 교원과 학생, MPK와 APCTP, Apple Academy 운영 환경에서 영어 메일과 영어 미팅, 영어 행정문서 작성이 일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 4-5. 정부 사업 수주와 평가 대응이 만드는 행정 사이클

POSTECH 행정의 한 해 사이클은 정부 사업 수주와 평가 대응을 중심으로 짜인다. 1월과 2월에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와 차년도 예산 확정이 이뤄진다. 3월에는 학기가 시작되고 BK21과 글로컬 같은 사업의 분기 정산이 진행된다. 5월부터 7월에는 정부 사업 공고가 쏟아지고 사업 수주를 위한 기획서 작성이 집중된다. 8월에는 연간 결산이 이뤄진다. 9월과 10월에는 QS와 THE 같은 글로벌 평가 기관에 데이터를 제출한다. 평가 대응의 정점이다. 11월과 12월에는 BK21과 글로컬의 연차평가, 단계평가가 진행되고 차년도 사업 기획이 마무리된다. 사업 수주, 사업비 정산, 평가 대응의 연속 프로세스 관리가 행정 KPI의 본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4-6. 안정성과 변화 적응의 동시 요구

POSTECH은 사립대 정년 보장과 정규직 전환(1년 계약 후 정규 전환) 트랙을 운영해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김성근 총장 체제는 리더십과 추진력, 소통능력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고, POSTECH 2.0과 의대, 환동해 아카데미 같은 변화 폭이 매우 크다. 안정 추구형 인재와 변화 주도형 인재의 동시 적합도가 평가된다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학교 외부 평판은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라는 평이 다수지만, 사업단 또는 기획처에 배치되면 사기업 컨설턴트 수준의 업무 강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후기도 함께 존재한다. 보직 순환에 따라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채용 페이지의 헤드 메시지(수월성, 올바른 가치관, 지혜로움, 도전)와 김성근 총장 취임사의 핵심어(모험가 정신, 양방향으로 가장 열려 있는 대학)가 본인의 직무 적합성과 어떻게 정렬되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 외국인 응대, 영문 보고, 정부 사업 정산이라는 세 가지 실무 역량은 경험과 자격,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 자기 표현보다는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가 평가의 가중치를 높인다.

---

## 5장: 직무 분석

### 5-1. POSTECH 일반행정의 정의와 9개 도메인

POSTECH 채용공고에서 '일반행정'은 분야 명으로 사용되고 직무 내용은 '대학행정 업무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명시된다. 이 안에 들어가는 도메인을 풀어 보면 아홉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학사행정이다. 수강신청, 학점관리, 졸업사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교무행정이다. 교과목 관리와 교원 인사가 핵심이다. 셋째는 입학과 학생처 업무다. 입학사정, 장학금, 생활지원, 학생 상담을 포괄한다. 넷째는 연구행정이다. 연구비 관리와 BK21, 글로컬, LINC, TMC 같은 정부 사업 운영이 들어간다. 다섯째는 기획행정이다. 중장기 전략, 통계, 평가 대응이 핵심이다. 여섯째는 재무와 회계다. 예산 편성, 결산, 세무 처리가 포함된다. 일곱째는 인사와 노무다. 여덟째는 총무와 시설이다. 자산 관리와 구매가 들어간다. 아홉째는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창업 행정이다. 정규직 직원은 통상 부서 순환보직을 통해 다수 도메인을 경험한다. 자소서닷컴을 비롯한 다수의 합격 후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패턴이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5-2. 부서 배치 패턴과 사업단 구조

POSTECH 본관 산하에는 기획처,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재무처, 인사팀, 국제협력팀, 홍보팀, 학술정보원, 학사관리팀이 자리한다. 산학협력단은 별도 분리 운영이며 그 안에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원센터가 있다. 부속기관과 연구소(PAL, MPK, 나노융합기술원, AI연구원, 글로벌사업단 등)에는 별도 행정원이 배치된다. 인사팀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부서 미션으로 명시하는데, 이는 행정 인력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강조하는 학교 메시지다. 신규 채용된 일반행정 인력은 본관 부서 또는 사업단의 어느 곳에든 배치될 수 있다. 첫 보직이 향후 5년의 경력 경로를 강하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5-3.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업무 사이클

행정 실무자의 시간은 다양한 단위로 흘러간다. 하루 단위에서는 POVIS와 연구비 시스템 처리, 교수와 외부 기관 메일 응대, 결재 회람이 주가 된다. 주 단위에서는 부서 회의, 사업단 운영회의, 결재 정산이 진행된다. 월 단위에서는 월별 사업비 정산과 실적 보고, 통계 입력이 이뤄진다. 대학알리미 공시 항목 가운데 일부도 월 단위로 갱신된다. 분기 단위에서는 BK21과 글로벌의 분기 정산, IRB 정기 회의가 진행된다. 반기 단위에서는 등록과 졸업, 입시 행정의 큰 묶음이 작동한다. 연 단위에서는 예결산, 정부 사업 연차평가와 단계평가, QS와 THE 데이터 제출, 학사 일정의 큰 묶음(학기 시작과 종료, 졸업식, 입학식, '해맞이한마당' 같은 5월 축제)이 진행된다. 한 명의 실무자가 동시에 여러 시간 단위의 업무를 다중 작업하는 구조라는 점이 일반 사기업의 직무와 갈리는 결정적 차이이다.

### 5-4. 이해관계자 지도와 협업 빈도

내부 이해관계자는 교수 약 290명, 연구원, 학부생 약 1,300명, 대학원생 약 1,800명이다. 외부 정부 이해관계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NIH 한국 카운터파트가 있다. 외부 협력 이해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항시,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선린대학교, 포항대학교, 안동대학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KIC Washington, Apple, Google, 삼성, SK 같은 기관이다. 국제 이해관계자는 막스플랑크재단(독일), APCTP 19개 회원국, 가톨릭의대(P-CBEI) 등이 있다. 한 사람의 행정 실무자가 일주일 안에 이 가운데 5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부서 협업과 기관 간 협업의 빈도가 다른 사립대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다.

### 5-5. 필요 역량과 KPI의 추론

하드 스킬 영역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로 연구비 회계 실무다. NTIS와 R&D 카드의 운용 경험이 도움이 된다. 둘째로 정부 사업 양식과 정산 실무다. 셋째로 POVIS와 통계 데이터 처리 경험이다. 넷째로 영문 행정문서 작성 능력이다. 다섯째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본 이해다. 여섯째로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 시스템 응대 경험이다.

소프트 스킬 영역에서는 박사급 교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다부서 협업(기획, 재무, 연구, 국제 부서가 동시에 협업하는 빈도가 높다), 변화관리(POSTECH 2.0, 의대, 글로벌), 디테일과 정확성, 외국인 응대 매너가 중요하다.

KPI 추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 사업 평가 등급에서 A 이상을 받은 비율, 연구비 정산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적기성, 외부 감사 지적 건수, 행정 만족도(교원 서베이 결과), 사업 수주 금액과 건수, QS와 THE 데이터 제출 정확성, BK21과 글로컬의 단계평가 결과, 시스템 효율화(POVIS 처리 시간 단축) 같은 지표가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 이는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항목은 아니지만 합격 후기와 학교 공식 발표를 종합해 도출한 합리적 추론이다.

### 5-6. 채용 트랙의 구조적 특징과 우대조건의 의미

POSTECH의 공식 채용공고에 따르면 신규 합격자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직무 수행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일관되게 운영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고에서 동일하게 확인됐고, 2026년 상반기 공고도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우대조건으로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웹과 영상 편집 능통자, 통계 프로그램 능통자가 일관되게 명시된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대학행정 + 라이선스/디지털 스킬'의 결합형이라는 강한 시그널이다.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과 디지털 툴 숙련도, 어학 점수를 이 우대조건의 카테고리 따라 재정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자기 점검 방식이 된다.

###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일반행정의 광역 모집 특성상 모든 도메인에서 평균 이상의 역량이 요구된다. 다만 평가 가중치는 연구비 행정(BK21, 글로컬, TMC), 정부 사업 정산, 영문 행정의 세 영역에서 가장 무거울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경험과 자격증, 디지털 툴 숙련도, 어학 점수를 이 세 영역에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POSTECH 2.0, 환동해 아카데미, 연구중심 의대가 만들어낼 신규 행정 수요를 본인의 직무 미래 비전과 묶어 객관적 적합성 매트릭스를 그려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 참고 레퍼런스(References)

1. POSTECH 공식 홈페이지(가치창출대학) — <https://postech.ac.kr/kor/index.do>
2. POSTECH 연구 현황(연구비 출처 비율, 전임교원 수) — [https://www.postech.ac.kr/kor/university-introduction/research\\_progress.do](https://www.postech.ac.kr/kor/university-introduction/research_progress.do)
3. POSTECH 연구 인프라 페이지 — [https://www.postech.ac.kr/kor/research-industry-academia/research\\_infrastructure.do](https://www.postech.ac.kr/kor/research-industry-academia/research_infrastructure.do)
4. POSTECH 산학협력단 — <https://aif.postech.ac.kr/kor/index.do>
5. POSTECH 채용 포털(2026년 상반기 공고) — <https://postec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37829>
6. POSTECH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공식 보도) — <https://postech.ac.kr/kor/newscenter/notice.do?mode=view&articleNo=1689>
7. 김성근 POSTECH 제9대 총장 취임 보도 — <https://www.postech.ac.kr/%EA%B9%80%EC%84%B1%EA%B7%BC->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postech-%EC%A0%9C9%EB%8C%80-%EC%B4%9D%EC%9E%A5-%EC%B7%A8%EC%9E%84/

8. 비즈니스포스트 김성근 총장 인물 분석(Who is)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8631](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8631)
9. 포항공대신문 'POSTECH Receives 1.2 trillion KRW for POSTECH 2.0' —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2>
10. 포항공대신문 '2024년을 맞이하며'(POSTECH 2.0 결의 기사) —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11. 월간중앙 '환동해 글로벌대학' POSTECH 혁신스토리 —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41>
12. 한국대학신문 김종규 대외부총장 인터뷰(글로벌대학 1조 2,000억 투자)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419>
13. 프레시안 김성근 총장 의대 설립 발언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310351487036>
14. 청년의사 'MIT 의대 vs 일리노이대 의대 신설' 분석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09>
15. 영남일보 'POSTECH 의과대학 설립' 기획기사 — <https://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5228>
16. 대구MBC '의대 신설 25년 만에 빛장 풀리나,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주목' — <https://dgmbc.com/article/LRCH-ecOhcLglCaf>
17. 한국대학신문 2026 THE 세계대학평가(POSTECH 141위)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792>
18. 베리타스알파 2026 THE 세계대학순위 톱5 분석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27>
19. 한국대학신문 QS 세계대학순위 3개년 분석(POSTECH 점수 변동)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275>
20. 뉴스스페이스 QS 아시아 대학 순위(POSTECH 18위) —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10495>
21. THE POSTECH 평가 페이지 —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pohang-university-science-and-technology-postech>
22. 다음 뉴스 '4대 과기원 정부 예산 지원 27% 불과'(국감 자료) — <https://v.daum.net/v/20251024111500765>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23. ZDNet Korea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OSTECH·KENTECH 등) —  
<https://zdnet.co.kr/view/?no=20260507184356>
24. 충남일보 '학령인구 위기, 향후 10년간 195만 명 감소' —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850>
25. 교육을 비추다 '2026년 학령인구 483만 명 진입'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
26. 교육을 비추다 '2026 사립대 등록금 80.8% 인상'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
27. 한국일보 '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 등록금 동결 재검토'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715260000080>
28. POSTECH 대학원총학생회 '2025 등록금 동결' 공지 —  
<https://gsa.postech.ac.kr/community/notice/?mod=document&uid=1291>
29. 포항공대신문 '4단계 BK21 사업 우리대학 현황' —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8>
30. 경북매일 '체인지업그라운드 100% 입주, 1조 5,121억 기업가치' —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487>
31. 영남일보 'POSTECH 환동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 모집'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50402020585701>
32. POSTECH 환동해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 공식 공지 —  
<https://www.postech.ac.kr/kor/newscenter/university-news.do?mode=view&articleNo=16145>
33. 포스코청암재단 — <https://www.postf.org/>
34.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채용 공고 — <https://postechholdings.com/>
3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POSTECH 기술지주 채용 공고' —  
[https://www.kvca.or.kr/Program/user\\_board/listbody.html?po\\_no=2434](https://www.kvca.or.kr/Program/user_board/listbody.html?po_no=2434)
36. 헬로디디 '김성근 POSTECH 신입 총장 취임' —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04>
37. 대경일보 '김성근 POSTECH 총장 취임, 제2의 도약 향해'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45>
38. 사람인 POSTECH 채용 정보(2026년 진행 공고 전체 목록) —  
<https://m.saramin.co.kr/job-search/company-info-view/recruit?csn=TUtnR2F6VfYrY1MyeDFUTGtWTTBvdz09>

## 심층 분석 보고서: 포항공과대학교-일반행정

---

- 39. 인크루트      POSTECH      채용      기업      정보(2025년      기준)      —  
<https://www.incruit.com/company/1608399/>
  
- 40. 잡코리아      '포스텍'      관련      채용      공고      검색      —  
<https://www.jobkorea.co.kr/Search/?stext=%E3%88%9C%ED%8F%AC%EC%8A%A4%ED%85%8D>
  
- 41. 진학사      POSTECH      입시      정보      페이지      —      <https://www.jinhak.com/jh/high3/univ-major/univ-info/univ-search/detail?UnivCode=1147&Flag=1>
  
- 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항공과대학교'      항목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209>
  
- 43. 위키백과      '포항공과대학교'      —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D%95%AD%EA%B3%B5%EA%B3%BC%EB%8C%80%ED%95%99%EA%B5%90>
  
- 44. 나무위키      '포항공과대학교'(보조      자료)      —  
<https://namu.wiki/w/%ED%8F%AC%ED%95%AD%EA%B3%B5%EA%B3%BC%EB%8C%80%ED%95%99%EA%B5%90>
  
- 45. 나무위키      '글로벌대학      30'      항목      —  
<https://namu.wiki/w/%EA%B8%80%EB%A1%9C%EC%BB%AC%EB%8C%80%ED%95%99%2030>